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宣和奉使高麗圖經』의 활용양상과 가치

박 정 민*

- I. 머리말
- II. 『고려도경』의 작성배경과 특징
- III. 『고려도경』을 활용한 고려청자 연구동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청자(靑瓷)는 고려를 대표하는 공예품이다. 고려청자는 단순한 명품(名品)을 넘어선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한국도자사는 물론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고려청자의 우수성은 당대(當代)에도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연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남송(南宋) 태평노인(太平老人)의 「袖中錦」은 고려 비색청자를 천하제일이라 칭했다.¹

12세기 송나라 문인이 천하제일로 인식했던 고려청자는 당시로부터 불과 2세기 전인 10세기 까지만 하더라도 고려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릇이었다. 고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

¹ 『學海類編』 「袖中錦」天下第一. 監書內酒端硯 洛陽花 建州茶 蜀錦 定磁 浙漆 吳紙 晉銅 西馬 東絹 契丹鞍 夏國劍 高麗秘色 興化軍子魚….

에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청자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준 높은 청자에 대한 고려 왕실과 귀족사회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다.

고려청자의 이러한 비약적 발전과 우수한 수준에 비해 남아있는 문헌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고려시대 청자는 주로 문인들의 시구(詩句)에 등장하며, 당시 청자의 제작과 쓰임을 자세하게 파악할 만한 사료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시대 청자가 사용된 환경과 그릇의 명칭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가 담긴 문헌자료가 있으니 바로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이다.

서궁(徐兢, 1091~1153)이 지은 『고려도경』에는 12세기 전반 고려청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서궁은 송의 사대부이자 지식인이었으며 무엇보다 관료였다. 서궁은 휘종(徽宗, 재위 1100~1125)에게 보고하기 위해 고려의 실정을 기록했다. 따라서 『고려도경』은 12세기 고려사회의 면면과 고려청자를 중국인의 시각으로 살펴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

『고려도경』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고려청자, 나전칠기 등 공예사 연구는 물론 역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학문분야에서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² 또한 “비색(翡色)”, “세밀가귀(細密可賈)” 등 고려시대 공예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단어도 『고려도경』에서 비롯되었다.³

『고려도경』은 고려와 북송, 양국의 도자문화(陶器文化)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양국의 상황을 유기적으로 비교,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II. 『고려도경』의 작성배경과 특징

『고려도경』을 작성한 서궁은 안휘성(安徽省) 화구(和县) 역양(歷陽)사람으로 자는 명숙(明叔)이고 호는 자신거사(自信居士)였다.⁴ 예종(睿宗, 재위 1105~1122)의 조문과 함께 인종(仁宗, 재위 1122~1146)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사신단에 ‘봉의랑충봉사고려국신소제할인선예물(奉議郎充奉使高麗國信所提轄人船禮物) 사비어대(賜緋魚袋)’로 고려에 방문했다.⁵

서궁은 당시 봉의랑(奉議郎)이었으며 국신소(國信所)에 속한 제할(提轄)로 사신단의 인원·선박·예물을 관리, 감독했다. 서궁이 속한 국신소는 본래 거란(契丹)과의 외교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12세기 초 휘종(徽宗)은 북방의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고려를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인식했다. 이에 고려로 가는 사신을 국신소로 승격시키고, 국신소가 고려와의 외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연계를 강화했다.⁶

북송은 고려에 총 16차례의 사신단을 파견했으며 서궁이 포함된 1123년의 마지막 사행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서궁은 중요한 고려 사행에 예물은 물론 인원, 선박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탁지관(度支官)으로 선발되었다. 동시에 고려 방문 이후 고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핵심 임무도 부여받았다. 서궁이 이러한 직무를 맡게 된 것은 당시 북송 정계가 그를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궁의 행장(行狀)을 정리한 장효백(張孝伯) 역시 서궁은 인정이 많고 우애가 있으며, 고급의 전적, 서예, 그림에 통달했다고 평했다. 그의 그림은 신품(神品)의 경지에 올랐으며 산수화, 인물화에 모두 탁월했다고 한다.⁷ 어려서는 서현(徐鉉, 916~991)의 후신으로 인정받기도 했다.⁸ 서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가 죽은 후에도 이어졌다.⁹ 휘종은 고려의 실정을

2 김수연, 「『고려도경』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한국문화연구』 16 (2009), pp. 269-280; 송재용, 「『고려도경』에 나타난 高麗의 民俗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32 (2013), pp. 6-7, 각주4 참조; 최웅천,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시대 공예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pp. 141-174; 우리나라와 중국을 연구하는 일부 미국학자들 또한 중국이 바라본 고려사회의 특징과 고려사회에 투영된 중국의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주제로 『고려도경』을 활용한다. 관련분야를 입체적으로 논의한 최근의 성과로는 Colloquium: A Song Excursion to Korea: Xu Jing and the Gaoli-tujing (Koryŏ-togyŏng),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Center for Korean Studies, 2016.

3 2018년은 고려건국 1,100주년으로 각종 전시,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그 중 경기도박물관은 『고려도경』을 주제로 삼아 전시와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특별전 <고려도경·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는 경기도박물관이 2018년 7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개최한 전시로 『고려도경』의 내용을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풀어냈다. 2019년 9월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예 지식백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공예사 연구에서 『고려도경』이 지닌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4 『宣和奉使高麗圖經』宋故尚書刑部員外郎徐公行狀. 公名兢 字明叔 姓徐氏 上世建州甌寧縣人 自光祿 始徙居和州之歷陽.

5 『宣和奉使高麗圖經』序. 奉議郎充奉使高麗國信所提轄人船禮物 賜緋魚袋 臣徐兢撰

6 휘종은 1117년(政和 7)에 현재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인 명주(明州)에 고려사(高麗司)를 마련하고 사신단의 거점인 고려사관(高麗使官)도 지었다. 고려사관은 후에 토지신의 사당인 보규묘(寶奎廟)가 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1999년부터 고려와 명주의 교류 역사를 전시한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7 『宣和奉使高麗圖經』宋故尚書刑部員外郎徐公行狀. 畫入神品 山水人物 二俱冠絕 嘗戲爲平遠 題長句其側 以遺駒駒 每出以示人曰 明叔詩爲畫邪 畫爲詩邪.

8 서현은 남당(南唐)의 학자로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 광릉(廣陵) 사람이다. 시문에 능했고 문자의 훈고(訓詁)에 뛰어났으며 전서와 예서를 잘 썼다고 한다.

9 祁慶富, 「宣和奉使高麗圖經의 판본과 그 源流」, 『서지학보』 16 (1995), pp. 5-6.

파악하기 위해 글과 그림에 능한 서궁을 사신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1123년의 북송 사신단은 국신사(國信使) 노윤적(路允迪)을 중심으로 그 해 3월 개봉(開封)을 출발하여 약 3개월 후인 6월 12일에 개경(開京) 주변 예성항(禮成港)에 도착했다. 6월 초 서궁과 사신단이 군산도에 이르자 고려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을 접반사(接伴使)로 보내 환영했다. 사신단은 개경에 도착해 새로이 등극한 고려 인종에게 북송 휘종의 조서를 전달하고 고려 예종을 조문하는 등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개경의 순천관(順天館)에 머물다가 귀국길에 올랐다.¹⁰

『고려도경』은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을 담은 일종의 보고서다. 그 만큼 수집된 정보는 기존 북송 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보다 다양하고 또한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했다. 이를 위하여 사신단 전체의 집단 경험과 사실 관계에 대한 상호검증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고려도경』은 서궁의 개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신단에 포함된 여러 인물들이 체험하고 수집한 정보들까지 포괄한 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궁은 다양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고려도경』을 구성했다. 그는 자서(自序)에 고려에서 보고 경험한 것 중에 중국과 다른 것들 3백여 항목을 취하여 40권으로 책을 꾸렸으며 대체로 물건은 그림으로 그리고 일은 글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그림을 생략하고 그 이유를 제시한 항목을 빼면 대부분 항목은 그림과 글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고려도경』의 글과 그림은 서로 보완하며 정보를 담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도경(圖經)은 특정한 개념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건, 사실을 보고하고 정리, 보관하기 적절하다.

그림(圖)과 글(經)로 내용을 꾸린 도경체(圖經體) 기록방식은 당(唐) 이래로 각 지역의 정보를 담은 지방지(地方誌)를 비롯하여 북송 이계(李誠, 1065~1110)가 지은 『營造法式』같은 토목건축 지침서에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북송의 소송(蘇頌, 1020~1101)이 편찬한 『本草圖經』 역시 도경형식으로 엮은 대표적인 책이다. 본초도경의 글과 그림은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고려, 조선의 각종 의학서(醫學書), 농서(農書) 작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그림과 글을 함께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담아낸 도경(圖經)은 정보를 기록함과 동시에 최대한 입체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책이다. 북송 조정은 다양한 도경체 출판물들을 외교와 도시건축

¹⁰ 서궁은 1123년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딱 한 달간 개경에 체류하고 돌아갔다. 서궁이 포함된 사신단의 여정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장남원, 「필사본 『고려도경(高麗圖經)』의 유포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17 (2009), pp. 192-193; 배규범, 「徐兢(1091~1153)의 『高麗圖經』 刊行과 내용상 특징」, 『東方文學比較研究』 6 (2016), pp. 61-64.

은 물론 의학과 농업을 아우르는 각종 분야의 원활한 통치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고려도경』을 본 휘종은 서궁에게 지대종정승사겸장서학(知大宗正丞事 兼掌書學)의 벼슬을 내리고 상서형부 원외랑(尙書刑部 員外郎)으로 삼았다.¹² 서궁을 사신단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서궁은 『고려도경』의 본문에 고려이전의 역사와 고려의 역사를 우선 기술하고, 개경의 시설과 궁궐, 관복, 관부, 중요인물을 설명했다. 이어서 고려의 의례와 의장 용품, 종교, 풍속, 사신단의 공식행사, 사신단의 숙소와 생활용기, 사신단이 오고간 바닷길과 고려의 배를 기록했다. 본문의 마지막은 중국과 동일한 고려의 문물을 설명한다. 북송은 『고려도경』을 통해 고려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 북방의 군사적 불안이 높아가던 북송에게 『고려도경』의 내용은 전략적으로 유용한 정보였을 것이다. 책의 실제 내용도 유사시 직접 활용할 뱃길과 군제, 의장 및 성곽과 관청의 모습이나 기능에 대한 정보 위주로 채워졌다. 책에 기록된 고려의 여러 풍속들 역시 차후 고려를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한 자료로서 간주되었을 것이다.

서궁의 기록은 지극히 사적인 추론이나 개인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 『고려도경』은 서궁이 미리 파악했던 고려에 대한 지식의 바탕에 서궁을 비롯한 사신단에 속한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녹여 만든 기록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송은 고려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할 때 일종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도경』 같은 ‘정보집(情報集)’이 필요했을 것이다.

북송 사회는 『고려도경』 이전에도 고려 산천의 형세와 풍속을 기록했다. 1084년(宣宗 1) 고려를 방문한 송 사신 송구(宋球)는 『高麗圖記』라는 책을 남겼다.¹³ 서궁의 기록은 『고려도기』나 서궁 자신이 참고했다고 언급한 『鷄林志』 등 당시 중국에 축적되어 있던 고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¹⁴ 서궁을 비롯한 사신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예정된 장소에만 머

¹¹ 올해 개최된 고려도경 국제학술포럼에서도 ‘도경체’ 기록물의 개념과 구성 특성을 파악하고 『고려도경』의 체제와 책에 언급된 그릇들을 고찰한 연구가 있었다. 박지영, 「『고려도경』의 시각적 재구성」,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pp. 6-21.

¹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故尙書刑部員外郎徐公行狀 徽宗皇帝 覽其書大說 召對便殿 賜同進士出身 擢知大宗正丞事 兼掌書學 遷尙書刑部 員外郎.

¹³ 『海東釋史』 45卷 藝文志 4 經籍 4 中國書目 2 東國記事. 宋球 『高麗圖記』. 송구는 개봉(開封) 산조(酸棗) 사람이다. 음관(蔭官)으로 예빈원(禮賓院)에 속했다가 원풍(元豐) 6년(1083)에 전협(錢鏐)이 이끄는 사신단에 속해 고려를 방문했다. 그때 몰래 고려산천의 형세와 풍속의 호상(好尙)을 알아낸 다음에 사행에서 돌아와 『高麗圖記』를 찬하여 바치니 북송 신종(神宗, 재위 1067~1085)이 칭찬했다고 한다.

¹⁴ 북송 사신단이 고려에 대해 기록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오식(吳拭)의 『鷄林記』 30권, 왕운(王雲)의 『鷄林志』 30권, 손목(孫穆)의 『鷄林類事』 3권, 저자를 알 수 없는 『使高麗錄』 2권 등이다. 하지만 이들 문헌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다. 祁慶富, 앞의 논문 (1995), p. 8.

물렀다. 서궁 또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궁은 『고려도경』에 기록할 내용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려도경』에 ‘요즈음’ 혹은 ‘근년’, ‘근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서궁이 미리 학습한 내용과 실제로 경험한 사항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다.¹⁵

서궁은 주로 중국 기준으로 고려에서 파악한 다름과 같음을 기록했고, 그 기준은 서궁이 특별하게 인식한 고려청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고려도경』이 북송과 고려가 향유했던 도자문화(陶器文化)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려는 개국 이후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¹⁶ 특히 서궁이 고려를 방문한 1123년은 고려가 북송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던 시절이었다. 고려 왕실은 중국의 그림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적을 구해 별도로 보관했다.¹⁷ 중국의 문화, 예술 그리고 지성에 대한 갈망은 고려 예종과 인종연간이 되면서 더욱 커졌다.¹⁸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 고려 왕실은 북송의 문물을 빠르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향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향의 결과는 서궁이 둘러본 고려청자와 고려청자가 사용된 왕실 환경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을 것이다.

『고려도경』은 이처럼 당시 고려와 북송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자료이지만 동시에 어느 문헌 자료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사료(史料)이다. 우선 『고려도경』에

¹⁵ 『高麗圖經』卷7 冠服 令官服…(전략)…比年國官悉以紫文羅袍紗製幘頭…(후략)…; 『高麗圖經』卷 19 民庶 工技…(전략)…比年器服益工…(후략)…; 『高麗圖經』卷 23 雜俗[二] 土產…(전략)…邇來北虜降卒工技甚衆故益奇巧染色又勝於前日; 『高麗圖經』卷24 節仗 節仗…(전략)…比年使命每至麗國…(후략)…; 『高麗圖經』卷 24 節仗 次充代下節. 國朝故事奉使高麗下節皆卒伍比歲稍許命官士人藝術工技; 『高麗圖經』卷 31 器皿[二] 花壺…(전략)…舊年不甚作邇來頗能之…(후략)…; 『高麗圖經』卷 32 器皿[三] 茶俎…(전략)…商賈亦通販故邇來頗喜飲茶益治茶具…(후략)…; 『高麗圖經』卷 32 器皿[三] 陶尊…(전략)…近年以來制作工巧色澤尤佳; 『高麗圖經』卷 40 同文 樂律…(전략)…比年入貢又請賜大晟雅樂及請賜燕樂…(후략)…

¹⁶ 고려는 국초(國初)인 10세기 후반부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청자를 제작했다. 고려청자 탄생에 중국의 청자제작기술이 활용된 점과 초기청자가 마터에서 제작된 그릇들이 중국청자와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은 당시 고려가 청자를 통해 중국과 물질문화를 공유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¹⁷ 고려 문종(文宗, 재위 1046~1083)은 1074년(文宗 28) 송나라로 가는 사신 김양감(金良鑑)에게 송의 그림을 구해 오도록 하는가 하면, 1076년(文宗 30)에는 사신 최사훈(崔思訓) 등과 함께 화공(畵工)을 직접 보내 송나라 상국사(相國寺) 벽화를 모사해서 고려 흥왕사(興王寺)에 그리도록 했다. 안휘준, 『한국회화사』(일지사, 1980), pp.81-83.

¹⁸ 인종 또한 송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이녕(李寧)을 함께 파송했다. 송 휘종(徽宗)은 이녕이 그린 <禮成江圖>를 높이 평가했다. 이녕의 그림은 고려 인종이 중국의 작품으로 오인할 만큼 중국 화풍을 충실히 담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卷122, 列傳35 方技 <李寧>傳.



도 1 <宣和奉使高麗圖經>, 송(宋) 건도(乾道) 3년(1167), 서천강음 정강군재간본(徐葺江陰澗江郡齋刊本), 대만 국립고궁박물관(國立故宮博物院)

기록된 고려 이전의 왕조나 고려의 왕계는 오류를 포함한다.¹⁹ 이는 서궁의 불완전한 이해도와 함께 당시 북송 지식사회가 고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표출일 가능성이 있다.²⁰ 또한 『고려도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항목은 묘사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서궁을 포함한 사신단이 경험한 사실 위주로 책의 내용을 구성했을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

항목별로 다소 편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서궁이 숙소 밖으로 나간 것은 5, 6차례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북송 사신단이 확인한 정보들은 특정 항목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 북송 사신단의 행동에 제약이 따른 것은 고려 정부가 자국의 사정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널리 인용되는 『고려도경』의 판본이 서궁 자신이 직접 필사한 책이 아니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한다. 서궁은 1124년에 『고려도경』을 만들어 한 권은 어부(御府)에 바치고 부분(副本)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였다. 서궁 생전에 책을 인쇄하지 않았으나 이미 수차례 필사되어 세간에 전해졌고 그 때문에 송대 간행된 유일본인 건도본(乾道本)이 20세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일부 오류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필사본이 유통되었다(도 1).²¹ 『고려도경』은 조선 후기에도 필사되어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지적 욕구에 부응했다.

¹⁹ 『고려도경』의 역사 오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韓永愚, 『高麗圖經에 나타난 徐葺의 韓國史體系』, 『奎章閣』 7 (1983), pp. 20-23.

²⁰ 『고려도경』은 서궁이 지닌 “箕子の 교화”, “華風”, “송황제의 은덕” 같은 우월주의 관점에서 고려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연구가 있다. 김병인, 『고려도경에 비친 고려인들』, 『한국중세사연구』 55 (2018), pp. 77-114. 물론 이러한 접근과 인식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차후 『고려도경』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 건강한 비판의식과 다양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²¹ 서궁은 사신으로 다녀온 다음해 『고려도경』 정본(正本)을 휘종에게 바치고 부분(副本)을 따로 소장했다. 그러나 1127년 정강의 변(靖康之變)을 거치며 정본은 자취를 감추었다. 10년 뒤 조카인 서천(徐葺)이 그림 없는 사본의 일부를 강서성 남창시(南昌市)에 해당하는 홍주(洪州)에서 발견한다. 1167년(乾道 3) 서천이 이를 판각하여 현재 강소성 강음시(江陰市)인 정강군(澗江郡) 보관한다. 이를 초판본(初版本), 건도본(乾道本), 정강본(澗江本) 등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 중 일부는 『고려도경』의 기록을 통해 고려와 당대 물질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했을 것이다.²²

이러한 몇 가지 불완전성을 감안하더라도 고려청자 연구에서 『고려도경』의 가치는 분명하다. 그 역할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고려도경』에 언급된 고려청자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단선적이다. 또한 고려청자에 대한 당대 기록이 거의 전무한 현실 속에서 『고려도경』의 청자 관련 내용은 별다른 비판 없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확보해왔다. 필자 역시 고려도경의 사료적 가치는 충분히 인지하고 또한 인정한다. 다만 『고려도경』이 절대적이고 명백한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고자 한다.

청자를 비롯한 『고려도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은 그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려에 대한 정보를 서궁이 정리해 바탕을 만들고, 서궁을 비롯한 사신단이 고려에서 경험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서궁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갖추고 고려의 다양한 문물과 문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평가했는지는 미지수다.

역사는 기록된 바에 의해 구성된다. 동시에 해석의 산물이기도 하다. 역사연구에서 풍부한 사료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굳어진 역사인식은 때로 의식의 흐름까지 규정하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려도경』은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료로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도경』은 더욱 면밀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살펴봐야 할 사료이다. 동시에 『고려도경』을 통해 밝혀진 연구자 간의 인식이나 해석의 차이는 차후 고려청자 연구를 보다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른다. 이 책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송대 간행본이다. 그러나 명대와 청대에는 문자의 오류가 있는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 지부족재총서본(知不足齋叢書本) 등 다양한 사본들이 유행했다. 송대 건도본은 1925년이 되어 서야 그 해 만들어진 중국 북경(北京)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1932년 『天祿琳琅叢書』 제1집의 하나로서 영인하였다. 이 판본은 이후 한중일 삼국에서 출간되는 『고려도경』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祁慶富, 앞의 논문(1995), pp. 9-18; 김수연, 앞의 논문(2009), pp. 271-273.

²² 『고려도경』과 고려청자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 사회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장남원, 앞의 논문(2009), pp. 189-218. 해당 연구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 『고려도경』 필사본을 통해 18세기 이후 조선 지식인 사회가 고려를 인식하는 방향이 이전 시기보다 입체적으로 변화했음을 고찰했다.

Ⅲ. 『고려도경』을 활용한 고려청자 연구동향

1. 고려 비색(翡色)청자의 인식과 해석

현재 고려청자 연구에서 『고려도경』만큼 빈번하게 쓰이는 문헌자료는 매우 적다. 12세기 당대(當代) 고려청자를 기록한 거의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도경』은 고려청자를 미술사의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부터 애용되어 왔다.²³ 일제강점기는 물론 조선 후기부터 일부 사대부 지식인들은 『고려도경』을 인식했고 더불어 고려청자에 대해서도 파악했으나,²⁴ 『고려도경』은 한자문화를 공유한 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12세기 고려와 고려청자를 알린 중요한 문헌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권(卷) 26, 30, 31, 32처럼 기명(器皿) 특징의 기록은 고려청자를 필두로 다른 미술사분야와 문화사 연구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부분이다.

『고려도경』은 청자문화의 시원인 중국과 고려를 연결시켜 고려청자의 질적 수준을 가늠케 해주고, 동시에 중국과는 다른 고려청자의 특징도 제시한다. 『고려도경』은 12세기 전반 고려사회가 청자를 다른 재질의 그릇에 비해 선호했음도 이야기해준다.²⁵ 실제 고려 조정은 서궁을 비롯한 송나라 사신단 접대에 청자를 활용했다. 격을 갖추어야 하는 외교, 의전행사에 여러 종류의 청자 그릇을 사용한 것은 당시 고려가 높은 수준의 청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현재까지 고려청자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고려도경』에 기록된 단어와 개념들을 면밀

²³ 內山省三, 『朝鮮陶磁鑑賞』(東京: 學藝書院, 1936), pp. 16-17; 小田省吾, 『朝鮮陶磁史文獻考』(東京: 學藝書院, 1936), pp. 5-9; 高裕燮, 『朝鮮の靑瓷』(東京: 東雲文庫, 1939), pp. 5-9, 15-16; 野守健, 『高麗陶器の研究』(東京: 清閑舎, 1944), pp. 2-4, 9. 일제강점기 고려청자 연구는 대부분 청자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청자의 발생과 변화발전을 『고려도경』에 언급된 “靑陶”, “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 “定器制度” 등의 내용을 토대로 고찰했다. 中尾万三(1882~1936) 같은 연구자는 『고려도경』에 상감청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고려 상감청자의 발생을 서궁 사신단이 고려에 방문한 1123년 이후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려도경』을 활용한 고려청자 연구방식을 20세기 전반에 구축된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다. 久志卓真, 『朝鮮の陶磁』(東京: 雄山閣, 1974), pp. 154-155.

²⁴ 조선 후기 고려청자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정을 파악한 연구로는 장남원, 「고려청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과정으로 본 조선후기의 정황」, 『美術史論壇』29(2009), pp. 147-170.

²⁵ 『高麗圖經』卷26 燕禮 燕儀…器皿多以塗金或以銀而以靑陶器爲貴….

히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언급된 그릇들의 특징을 실제 고려청자들을 통해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어졌다.

〈사료-1〉

산예출향(狻猊出香) 또한 비색(翡色)이며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양련화(仰蓮花)가 있어서 그것을 받치고 있다. 여러 기물들 가운데 이것만이 가장 정절(精絶)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越州)의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의 신요기(新窯器)를 본받아 대체로 유사하다.²⁶



도 2 <청자사자형향로>, 높이 25cm, 호림박물관

〈사료-1〉은 산예출향이라는 향로에 대한 묘사다. 서궁의 기록에 부합하는 유물로는 호림박물관 소장의 <청자사자형향로>가 있다(도 2). 서궁은 그가 본 향로의 색을 비색(翡色)이라고 적었다. 실제 우리가 고려청자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바로 그 “비색(翡色)”이라는 단어가 『고려도경』에서 비롯되었다.

서궁은 고려의 비색이 중국의 비색(秘色)과 비견할 수 있되 차별적으로 인식했으므로 〈사료-1〉을 기록했을 것이다. 중국의 비색이 황실이나 귀족의 전유물인 특상품 청자를 개념적으로 지칭했다면 고려의 비색은 구체적인 색을 나타냈다. 고려 비색은 비취옥(翡翠玉)의 색을 의미하며 당대 고려인들이 최고 수준의 청자를 일컫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한다.²⁷

반면 서궁이 기록한 비색(翡色)을 구미(歐美)지역의 학자들은 주로 물총새의 색으로 인식했다. 영국인 Percival David(Sir Percival Victor David Ezekie, 1892~1964)는 중국 여요청자(汝窯)

²⁶ 『高麗圖經』卷32 器皿[三] 陶爐. 狻猊出香亦翡色也. 上爲蹲獸下有仰蓮以承之. 諸器惟此物最精絕. 其餘則越州古秘色汝州新窯器大槩相類.

²⁷ 최건, 「高麗翡色の 성격과 전개」, 『美術資料』83(2013), pp. 203-205.

靑瓷)를 언급하는 과정에 『고려도경』을 활용했으며 고려의 비색청자와 여요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그는 고려청자의 비색을 Kingfisher Colour로 번역했다.²⁸ 이후 『고려도경』은 20세기 전반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진 아시아도자 연구에서 고려청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²⁹

Gompertz(Godfrey St. George Montague Gompertz, 1904~1992) 또한 Percival David의 저작을 통해 고려청자를 인식했다. Gompertz는 주로 고려청자를 통해 한국과 한국의 예술품을 영국에 알린 인물이다. 그는 Percival David가 번역한 『고려도경』의 내용이 적절하며, 고려청자에 대한 가장 빠르고 믿을만한 기록으로 판단했다. 특히 『고려도경』이 당대 중국 지식인의 기록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제시했고, 『고려도경』에 언급된 고려청자의 비색이 중국 청자의 Secret Colour[秘色]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⁰

191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고려청자 연구에도 『고려도경』의 비색은 Kingfisher Colour로 번역되었다.³¹ 고려청자의 비색을 물총새 색으로 인식한 연구는 물총새의 깃이 하나의 색보다는 청색과 녹색이 만든 스펙트럼인 점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미지역의 학자들은 고려비색청자의 색을 청색과 녹색의 복합으로 인식했다. 물총새의 깃은 청색과 녹색이 뒤섞인 오묘한 색이다. 실제 12세기 고려청자의 색은 하나의 색보다는 일정한 색의 범위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이루어진 연구는 1890년대에서 1910년대 근대 서구(西歐) 학자들이 실제로 실물 고려청자를 접하며 동시에 『고려도경』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고려청자에 대해 새롭게 인식했던 과정을 유기적으로 고찰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서구에서 이루어진 고려청자 연구의 방향 설정에 『고려도경』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

²⁸ Percival David, “A Commentary on Ju Ware,”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s Society* reprint(1936-1937), pp. 5-6.

²⁹ Percival David의 여요청자 연구는 고려청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논지를 제공한다. 『고려도경』이 언급한 12세기 전반 고려청자와 여요청자의 친연성은 실제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Percival David의 연구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북송 여요청자의 요업 성격에서 관요로서의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접근은 차후 강진, 부안 지역 청자가마터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이희관, 「汝窯와 이른바 汝官窯. 여요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의 여정」, 『야외고고학』32(2018), pp. 13-19.

³⁰ G. St. G. M. Gompertz, “The Kingfisher Celadon of Koryo,” *Artibus Asiae*, Vol. 16, No. 1/2 (1953), p. 5.

³¹ 영국의 연구자들이 송대 중국자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도경』과 고려청자를 활용한 반면 미국의 연구는 고려청자를 개별 주제로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도경』의 “翡色”, “定器制度”, “狻猊出香” 등의 단어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그 성과에 대한 고찰은 김윤정,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 과정 연구 성과의 의미」, 『石堂論叢』66(2016), pp. 387-429; 同著, 「근대 미국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32(2016), pp. 291-320.

지 서구학계가 이룬 고려청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³²

2. 고려와 송 자기문화의 상관성 구축

『고려도경』에 기록된 비색은 특정 색의 의미를 넘어 고려청자와 중국청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초로도 인식되었다. <사료-1>처럼 서궁의 눈에 비친 산예출향이라는 향로는 월주나 여주의 그릇보다도 우수해보였다. 반면 다른 그릇들은 중국 월주나 여주의 그릇과 비슷하다고 전한다. 서궁의 안목이나 식견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가 보기에 고려청자의 비색은 당대 중국청자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이었다.

<사료-1>은 여러 고려청자 연구에 중요한 논지로 쓰였으며, 특히 고려 미술의 대외교류 양상이나 국제성을 입증하는 근거 역할을 했다.³³ 이러한 인식의 연장에서 월주 고비색이나 여주 신요기의 유색(釉色)을 청록색으로 상정하고, 당시 고려와 중국의 청자가 유사한 제작 수준과 방향을 공유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도 있었다.³⁴

중국도자를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사료-1>은 고려청자와 여요청자의 연계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한국과 중국의 도자문화를 각자 개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요청자와 북송관요자기는 고려청자와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 가능하다. 그러나 고려와 송 모두 청자는 국가가 생산을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공예품이었다. 고려청자에 대한 깊은 이해는 송대 청자의 유기적 분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³⁵ 특히 “汝州新窯器”라는 언급은 여요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문을 해결하고, 나아가 여요와 밀접하게 연계된 고려 비색청자의 등장시기와 특징

³² 김운정, 「근대 西歐의 시선으로 본 高麗圖經과 고려청자」,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52-65. 이 글은 근대 서구의 고려청자 연구동향을 『고려도경』에 기록된 특정 단어들을 기준으로 ‘비색(翡色)’과 고려청자, ‘월주고비색(越州古秘色)’, ‘여주신요기(汝州新窯器)’와 고려청자, ‘정기제도(定器制度)’와 고려청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³³ 강경숙, 「고려전기 도자의 대중 교섭」, 『高麗美術의 對外交渉』(예경, 2004), pp. 236-242.

³⁴ 해당 연구는 나아가 고려청자가 중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까지도 제시했다. 방병선, 「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 『강좌미술사』 40(2013), pp. 30-33; 최진, 앞의 논문(2013), pp. 205-209.

³⁵ 실제 송대관요(宋代官窯)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이 자신의 논지를 피력하는 과정에 『고려도경』을 활용하였다. 伊藤郁太郎, 「北宋官窯探訪」, 『陶說』 620(2004), p. 71; 謝明良, 「北宋官窯研究現狀의 省思」, 『故宮學術季刊』 第27卷, 第4期(2010), pp. 19-20.

을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로도 사용될 수 있다.³⁶

<사료-2>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翡色)이라 한다. 근년에 만드는 솜씨가 좋고 빛깔도 더욱 좋아졌다. 술그릇의 형상은 참외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기면에 연꽃과 옆드린 오리의 형태가 있다. 또 완·접·배·구·꽃병·탕잔(湯淺)도 능히 만들 수 있고 모두 정기제도(定器制度)를 (허락 없이) 모방한[竊放]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하여 그리지도 않고, 술그릇(술통)만은 다른 그릇과 다르기 때문에 특히 드러냈다.³⁷



도3 <청자음각연화모란문참외형매병>, 높이 34cm, 국립중앙박물관

<사료-2>는 현재 매병이라고 부르는 술 담는 준(尊)에 대한 기록이다. 서궁은 몸통이 과형이며 연꽃과 오리가 시문된 그릇이 특별해 보였던 모양이다. <청자음각연화모란문참외형매병> 정도가 서궁의 눈에 비친 그릇과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도 3).

<사료-2>에 언급한 “定器制度”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12세기 전반 고려와 송의 도자문화가 비교적 밀접하게 연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고려청자 연구가 구체화되던 20세기 전반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정기제도를 ‘정요(定窯) 자기의 양식’으로 파악했다.³⁸

³⁶ 이희관, 「북송 여요와 그 성격 문제 -송대 문헌기록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4(2012), pp. 249-269; 同著, 『皇帝와 瓷器』(경인문화사, 2016), pp. 15-42, 111-112; 同著, 앞의 논문(2018), pp. 5-30. 연구자는 『고려도경』에 등장하는 “汝州新窯器”는 여주에 새로 건립된 요장에서 만든 기물, 또는 여주에서 만든 새로운 자기로 청량사여요(御用瓷器燒造區)에서 공여용으로 제작한 천청유자기(天靑釉瓷器)를 지칭할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한다. 연구자가 탐색하는 여요, 북송관요 등 북송시대 청자요업의 특징은 동시기 고려청자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12세기 전반 고려청자와 북송의 청자간의 유기적 상관성은 단순히 비슷한 그릇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넘어 양국이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공유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³⁷ 『高麗圖經』卷32 器皿[三] 陶尊. 陶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色澤尤佳 酒尊之狀如瓜上有小蓋面爲荷花伏鴨之形復能作盤, 樸, 甌, 花瓶, 湯淺皆竊放定器制度 故略而不圖以酒尊異於他器特著之.

³⁸ 고유섭 저·진홍섭 편역, 『高麗靑瓷』(삼성문화재단, 1977), p. 79; 정양모, 「靑磁象嵌發生의 側面的 考察」, 『國寶』 3,

북한 역시 1980년대 주체사상을 모든 학술활동의 근간으로 삼기 전까지는 “정기제도”를 정요 그릇의 모양으로 파악했다.³⁹ 북한의 도자기 연구는 1980년대 주체사상을 통한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고려청자의 편년설정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은 철저하게 배척했다. 북측은 다만 『고려도경』이 당시 중국인들도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인정한 증거라는 측면만을 강조한다.

“정기제도”를 정요 자기의 양식으로 파악한 접근방식은 12세기 전반 송나라와 금나라의 궁정용 정요자기가 고려청자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품질이 우수한 고려청자에 정요백자의 조형특징이 두드러진다고 고찰한 최근 연구에서도 드러난다.⁴⁰ 또한 문헌해석으로 서궁이 언급한 정기제도가 정요그릇의 형태임을 파악하고 특정유물을 통해 논지를 전개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⁴¹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정요에 대한 연구에서도 『고려도경』의 “정기제도”는 서궁이 당시 고려청자와 정요자기 간의 상관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했다.⁴²

반면 “정기제도”는 12세기 전반 고려청자가 갖추었던 ‘그릇을 만드는 일정한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하다.⁴³ 이러한 연구들은 12세기 전반 고려비색청자는 비단 정요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가마터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의 영향관계가 복합적으로 투영되었다는

靑磁土器(문예출판사, 1983), p. 198.

³⁹ 장주원, 「고려 자기의 비색(翡色) 및 상감(象嵌) 수법에 대하여」, 『문화유산』2(1958), p. 60.

⁴⁰ 김운정,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宋·金代 定窯 자기의 영향」, 『야외고고학』29(2017), pp. 41-69. 논문은 정요와 고려청자의 연관성을 문양과 기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조한다. 연구자는 특히 이룡문, 마갈문, 모란문 같은 문양을 통해 고려청자에 정요백자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특히 정요자기가 12세기 전반에 북송황실의 공자(貢瓷)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서궁이 언급한 “정기제도”는 ‘정요 자기의 양식’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⁴¹ 이희관, 「고려청자와 定器制度」, 『陶藝研究』26(2017), pp. 34-66. 연구자는 서궁이 사행 중에 접한 고려청자를 정요자기와 결부시켰다면 고려청자에 정요의 영향이 반영되는 것은 서궁의 사행 전일 것으로 설정하고, 서궁이 고려에 온 1123년은 고려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기종인 해무리굽완이 소멸되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비색청자를 제작했던 강진에서 해무리굽완의 생산이 끝나기 전에 정요자기의 문양이 등장했을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강진 용운리 9호나 10호 가마의 이른 유형(Ⅰ 유형) 청자들 가운데는 정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강진지역 내에서도 고급청자를 제작했던 사당리 가마터의 이른 시기 층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당리 가마터의 이른 시기 층위에서는 월주요의 쌍접문(雙蝶紋)이나 쌍봉문(雙鳳紋)이 음각된 청자가 존재하므로 초기청자 단계에도 사당리지역에서는 정요의 영향이 발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논지의 전개과정에 “정기제도”를 ‘정요 자기의 양식’으로 인식했다.

⁴² 高美京, 「定窑研究」, 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博士研究生学位论文(2015), p. 7, 310.

⁴³ 尹龍二, 『韓國陶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 21;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학고재, 1996), pp. 229-230; 임진아, 「高麗遺蹟出土宋代磁器研究」, 『史林』22(2004), pp. 206-207; 임진아, 「高麗靑磁에 보이는北宋·遼代磁器의 影響」,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pp. 80-81.



도 4 <청자참외형꽃병>(국보 제 94호), 인종 장릉(1146년), 높이 22.6cm, 국립중앙박물관

점을 들어 “정기제도”를 정요로만 국한지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한다.

최근 “정기제도”의 의미를 다룬 연구는 단어해석을 둘러싼 논정보다 12세기 전반 고려청자의 수준이 중국자기와 견줄 수 있게 되었음과 고려가 공식적으로 자기문화권에 진입했음을 “정기제도”라는 단어를 통해 인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⁴⁴ 이 연구는 실제 『고려도경』이 기록한 12세기 전반 고려청자와 중국자기와의 상관성을 인종 장릉(長陵, 1146) 출토품과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의 양상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도 4).⁴⁵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도경』이 기록한 고려 왕실의 환경은 예종이 만들어낸 것이다. 예종은 북송의 제도와 문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고자 노력했다. 뒤이어 즉위한 인종 또한 적극적인 모화(慕華)

태도를 드러냈다. 12세기 전반 고려 조정은 예제(禮制)의 기틀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 체제를 마련하고 기존의 체제를 정비, 확충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에서 청자 제작 수준도 한층 성숙해졌을 것이다.

⁴⁴ 장남원, 「『高麗圖經』의 ‘定器制度’와 청자」, 『한국중세사연구』55(2018), pp. 175-201. 연구자는 “定器制度”의 정기를 정요(定窯)로 확정하고 이를 고려시대 청자요업의 시기구분과 유물의 양식기준으로 삼는 것이 명료해 보기는 하지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2세기 고려 비색청자 단계에 확인되는 중국의 영향은 비단 정요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또한 『고려도경』에 “정기제도”가 언급된 “陶尊” 바로 뒤 이어진 “陶爐” 부분에 향로만 언급했음에도 “나머지”는 월주의 옛 비색자기와 여요의 새로운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기록되었음에 주목했다. 연구자는 이 부분의 내용 구성상 “정기제도”를 따랐다는 완(盥), 접(楪), 배(栲), 구(甌), 화병(花瓶), 탕잔(湯淺)이 바로 그 “나머지”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구자는 고려청자에 등장하는 정요의 영향은 보다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12세기 고려청자의 요업 상황과 『고려도경』에 사용된 “제도”의 용례를 종합하여 “정기제도”를 ‘일정하게 그릇을 만들던 제작방식과 양식’으로 파악했다.

⁴⁵ 장남원, 앞의 논문(2018), pp. 175-201. 연구자는 1146년 인종(仁宗) 장릉(長陵)에서 출토된 청자들과 12세기 전반 강진 사당리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된 청자에 투영된 중국 월주요, 여요, 경덕진요 등 여러 요장의 특징들을 종합하고 12세기 전반 고려가 국가의 기물을 정비하면서 고려청자에 왕실주도로 중국 그릇의 조형요소가 반영된 상황을 연계했다.

3. 고려시대 도자기의 명칭과 쓰임 고찰

『고려도경』은 고려시대 사용된 그릇의 명칭과 각 그릇이 쓰인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의 역할도 한다.⁴⁶ 또한 실제 『고려도경』에 언급된 그릇을 재질, 특징, 도량형 위주로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⁷ 이후의 연구는 책에 등장하는 여러 그릇을 명칭, 용도, 규격, 재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공예사적 의미까지 심층적으로 파악했다.⁴⁸ <사료-3>에 언급된 “金花鳥盞”은 고려시대 차문화를 바탕으로 용도, 재질 등의 파악이 시도된 대표적인 그릇이다.⁴⁹

<사료-3>

금화오잔(金花鳥盞)·비색소구(翡色小甌)은로탕정(銀爐湯鼎)은 모두 중국제도를 흉내 낸 것이다.⁵⁰

<사료-4> 고려에서는 찰쌀[粳米]이 없어서 멥쌀[秬]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빗갈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 왕이 마시는 것을 양온(良醞)이라고 하는데 좌고(左庫)의 맑은 법주[淸法酒]이다.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질그릇 술독[瓦尊]에 담아서 누린

비단[黃絹]으로 봉해둔다.⁵¹

<사료-5> 등나무 술독[藤尊]은 산과 섬의 주군(州郡)에서 바친 것이다. 속은 역시 질그릇 술독[瓦尊]이고 바깥은 등나무로 둘러 감쌌다. 배[舟]가 심하게 출렁거리 서로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다. 위에는 봉함이 있는데 각 주군(州郡)의 인장이 표시되어 있다.⁵²

우리가 현재 매병(梅瓶)의 고려시대 명칭을 준(尊)으로 인식하며, 당시 그릇의 여러 쓰임을 파악하는 것은 해저 출수유물과 『고려도경』의 내용을 함께 분석한 결과이다.⁵³ 앞서 살펴본 <사료-2>가 설명하는 도준(陶尊)이 청자과형매병일 것이라는 추론은 충남 태안 마도2호선에서 <청자상감과형매병>(보물 제 1783호)과 ‘樽’이라는 그릇 명칭이 적힌 죽찰(竹札)이 함께 출수되면서 사실로 바뀌었다.⁵⁴ 다만 <사료-4>에 언급된 와준(瓦尊)이나 질그릇 표면을 식물성 재료로 감싸 실용성을 더한 <사료-5>의 등준(藤尊)은 매병 이외 다른 종류의 항아리를 포괄적으로 지칭할 가능성도 있다. 서궁이 묘사한 부용준(芙蓉尊)이라는 그릇 역시 준이지만 그 생김이 매병과는 다르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⁵⁵

<사료-6> 정병은 목이 길고 배[腹]가 볼록한 모양인데, 곁에는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하나 있다. (정병의) 가운데에 두 마디가 있는데, 또한 줄을 맬 수 있는 고리[轆轤] 역할을 한다. 뚜껑의 목 중간에는 턱이 있고, 턱의 위에는 다시 작은 목이 있어 잠필(簪筆)의 형상이다. 귀인(貴人)과 나라의 관리[國官], 도관·사찰[觀寺]과 민가[民舍]에서 모두 사용하는데, 오직 물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높이는 1자 2치이고, 배의 지름은 4치이며, 용량은 3되이다.⁵⁶

46 『고려도경』을 통해 이루어진 고려시대 차문화와 찻그릇에 대한 고찰은 실제 고려청자의 쓰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접근이다. 장남원, 「고려시대 茶文化과 靑瓷·청자 茶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4 (2007), pp. 139-140. 이외에도 올해 열렸던 고려도경 국제학술포럼에서도 고려시대 그릇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신숙, 「서궁이 마주하고 기록한 고려의 器皿」, 『宣和奉使高麗圖經』,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66-73; 정은진, 「서궁의 눈에 비친 고려청자: 『宣和奉使高麗圖經』再考」,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84-105. 동시에 특정 기종에 대한 세부 접근도 추가되었다. 蔡玟芬, 「송대 중국의 반잔(盤盞) 풍조」,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38-51; 이용진, 「고려시대 의례와 『고려도경』의 香爐」,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74-83.

47 최몽룡, 「고려도경에 보이는 器皿」, 『한국문화』 6 (1985), pp. 63-73; 이종봉, 「『고려도경』에 기록된 도량형 자료의 검토와 의미」,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22-37.

48 장남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器皿類) 연구」, 『역사와 담론』 40 (2014), pp. 165-203. 이 연구는 『고려도경』에 등장하는 그릇들의 형태와 쓰임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49 고연미, 「『고려도경』의 금화오잔(金花鳥盞) 연구」, 『한국차학회지』 14-1 (2008), pp. 7-32. 연구자는 금화오잔(金花鳥盞)을 산화철 안료를 그릇의 표면에 가득 바른 철채청자(鐵彩靑瓷)로 파악하였다. 비록 현재까지 고려 철채청자에 화금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나름의 논거를 통해 주장을 구체화했다. 금화오잔은 칠기나 중국산 그릇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헌에 언급된 찻그릇 하나를 다각적으로 고찰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50 『高麗圖經』卷32 器皿[三] 茶俎…金花鳥盞 翡色小甌 銀爐湯鼎 皆竊效中國制度….

51 『高麗圖經』卷32 器皿[三] 瓦尊…王之所飲曰良醞 左庫淸法酒 亦有二品貯以瓦尊 而以黃絹封之….

52 『高麗圖經』卷32 器皿[三] 藤尊. 藤尊 乃山島州郡所饋也 中亦瓦尊 外以藤周纏之 舟中嶮岬 相擊不損 上有封緘 各以州郡印文記之.

53 고려시대 매병의 명칭과 특징에 대한 연구로는 김태은, 「고려시대 매병의 용례와 조형적 특징」, 『미술사학연구』 268 (2010), pp. 139-167; 이종민, 「고려~조선 초 매병의 제작과 형태변화」, 『매병 그리고 준: 향기를 담은 그릇』(2013), pp. 132-143; 박정민, 「명칭과 용도를 통해 본 매병의 기원과 변천」, 『매병에 담긴 역사이야기』(2017), pp. 90-101. 최근에는 『고려도경』을 기초로 고려시대 왕실의 음주문화에 대한 접근도 시도되었다. 김세진, 「『高麗圖經』으로 풀어본 高麗王室의 飲酒文化: 卷26 「燕禮」를 중심으로」,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2019), pp. 106-131.

5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2011).

55 『高麗圖經』卷30 器皿[一] 芙蓉尊. 酒尊之形 上有蓋如芙蓉花之方苞也 間金塗飾 長頸廣腹 高二尺 量容一斗二升.

56 『高麗圖經』卷31 器皿[二] 淨瓶. 淨瓶之狀 長頸脩腹 旁有一流 中爲兩節 仍有轆轤 蓋頸中間有隔 隔之上 復有小頸 象簪筆形 貴人國官 觀寺民舍 皆用之 惟可貯水 高一尺二寸 腹徑四寸 量容三升.

이와 더불어『고려도경』에는 12세기 고려사회에서 정병(淨瓶)이 불전(佛殿)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쓰였음도 기록되었다. 이 기록은 중국에서 정병이 주로 불전에 자리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고려의 상황이 낯설었던 서국은 고려인들이 정병을 매우 다양한 장소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것을 특별히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쿤디카(Kundica) 혹은 군지(軍持)로도 불리는 정병은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생명체까지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고안한 그릇이다. 불교는 물론이고 그 전에 등장한 자이나교 또한 살생을 금했다. 인도에서 종교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정병은 쌍구형(雙口形)의 독특한 모습이 특징이다. 정병의 몸통에서 바로 솟아오른 소위 첨대(尖臺)는 물을 따라내는 곳이고, 동체의 중간부 한쪽에 첨수구(添水口)는 물을 채우는 용도이다. 몸통에 난 수구는 입구를 올이 가는 천으로 막거나 안쪽에 구멍을 내서 병 안으로 작은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⁵⁷



도 5 <청자동녀형연적>, 높이 11.2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정병은 엄격한 계율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에서 출발해 불교의 법구이자 승려의 지물이 되었다. 불교국가 고려에서 정병의 쓰임은 종교를 넘어 일상생활로 넓게 확대되었던 모양이다.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품 <청자동녀형연적>은 어린 아이가 정병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도 5). 이 연적은 불교적 색채를 질게 드러내는 공예품이 아니다. <청자동녀형연적>의 정병에서 나온 물이 연적의 주인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는 있어도 불교 행위나 의식의 연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물론 고려는 불교국가였다. 종교는 일상을 아우르고 행동을 제약하는 틀이다. 불교국가 고려에서 정병은 특별한 위상을 지녔을 것이다. 그러나 그릇이 가진 의미 때문에 고려의 실상을 간과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모든 정병을 불교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고려도경』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정병이 출토되는

⁵⁷ 權相仁, 「軍持に關する研究」, 京都工藝纖維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pp. 6-18.

유적을 분석하고 함께 확인된 유물과의 조합관계 등을 면밀하게 고찰한다면 고려 사람들의 생활상과 그릇의 실제 쓰임을 보다 입체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⁸

<사료-7> 물항아리[水甕]는 물솥[水釜]의 형태와 같으나 약간 작다. 또 구리로 만든 뚜껑이 있다. 물을 길는데 사용하는데, 중국의 수통 모양을 본뒀다. 위에는 두 귀가 있어 당겨 매달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려의 풍속에는 이고 지는 것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용기가 가장 많다. 높이는 1자이고, 배의 지름은 1자 2치이며, 용량은 1말 2되이다.⁵⁹

<사료-8> 고려의 과일 중에 밤은 복숭아만큼 크며 맛이 달고 좋다. 옛 기록에 여름에도 있다 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도기에 담아서 흙속에 묻으면 해를 넘겨도 상하지 않는다고 한다.⁶⁰

『고려도경』은 <사료-7>과 <사료-8>처럼 고려시대 도자기가 쓰인 실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국은 이러한 고려의 모습이 중국과 견주어볼 때 기록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책에 수록했을 것이다. 서국이 고려를 방문할 무렵 북송의 외교환경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전운이 감도는 북쪽 국경의 상황은 북송 조정이 바깥 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 역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 두어야 할 대상이었다. 북송 사신단 입장에서 고려의 생활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보수집 활동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도자기의 쓰임을 파

⁵⁸ 고려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도자기 정병은 구연이 넓은 항아리와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흥미롭다. 강원도 동해(東海) 삼화동(三和洞) 고려 고분에서 출토된 41점의 도자기 중에도 고려백자 정병 두 점과 고려백자 항아리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양모, 「삼척군 북평읍 삼화리 출토 고려시대 유물 일괄」, 『고고미술』 129 (1976), pp. 190-199; 장남원, 「동해시 삼화동 고려 고분 출토 도자의 검토」, 『동해 삼화사와 고려 고분의 재조명』 (2017), pp. 31-49; 한성숙, 「三陟地域 靑瓷文化의 現況과 性格」, 『이사부와 동해』 13 (2017), pp. 37-69. 경상북도 안동 정하동 유적의 고려시대 고분에서도 조질의 청자정병이 청자항아리, 청자과형주자 등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인근 안동 안막동 고려시대 분묘군에서도 질그릇 정병이 두 점의 질그릇 항아리와 같이 출토되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 정하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0);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 안막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0). 차후 고려시대 다양한 성격의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 정병의 조형특징과 이와 함께 출토되는 그릇들의 조합관계 분석을 통해 사찰 밖에서 이루어진 정병의 쓰임을 파악해보겠다.

⁵⁹ 『高麗圖經』卷31 器皿[二] 水甕. 如水釜之形而差小 仍有銅蓋用以汲水 以象中國之水桶也 上有二耳 可以攀挈 麗俗便於負戴 故此器最多 高一尺 腹徑一尺二寸 量容一斗二升.

⁶⁰ 『高麗圖經』卷23 雜俗[二] 土產. …其果實 栗大如桃 甘美可愛 舊記謂夏月亦有之 嘗問其故 乃盛以陶器 埋土中 故經歲不損….

약할 수 있다.

또한『고려도경』은 고려시대 도기(陶器)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고려시대 도기에 관한 대표연구는 질그릇을 의미하는 ‘와(瓦)’자의 용례를 점검하고 도(陶)와 같은 개념을 사용되었음을 분석하고 대용(大甕)의 용례를 파악했다.⁶¹

IV. 맺음말

『고려도경』은 12세기 고려청자의 특징과 쓰임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자료로 일찍부터 고려청자 연구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활용할 만한 문헌자료가 부족한 고려청자 연구 환경에서『고려도경』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더욱이 송나라 문인관료가 기록한『고려도경』은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타자의 시각이라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도 부여했다. 또한『고려도경』은 청자라는 물질문화를 통한 당대 고려와 송의 연계 상황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

20세기 전반부터 연구자들은 고려청자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고려청자 발생과 발전의 틀을 구체화하는데『고려도경』의 기록을 활용했다. “翡色”, “定器制度”, “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등 고려청자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서공이 사용한 단어들은 여러 고려청자 연구에서 고려청자의 성격을 고찰하고 고려와 중국의 청자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이자 고리 역할을 했다.

『고려도경』을 활용한 연구는 기록된 그릇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함께 개별 그릇도 조명했다. 최근『고려도경』을 활용한 고려청자 연구는 조선 후기에 유통된『고려도경』필사본을 통해 고려청자에 대한 조선 후기 지성사회의 인식까지도 살펴보았다.

또한『고려도경』은 고려가 청자문화를 통해 중국과 연계되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했으므로, 고려청자는 북송의 청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역할도 한다. 지금도 한국의 연구는 아시아적 시각에서 고려청자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고 있으며『고려도경』은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전하는『고려도경』은 글만 남은 그림책임을 늘 감안해야 한다. 글

만 남은『고려도경』으로는 당시 사신단이 전달하려던 내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그림과 글이 함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고려도경』의 글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물론 그런 틈은 연구자들에게 해석과 추론의 기회이자 연구의 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비교할 만한 다른 문헌자료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고려도경』만으로 고려 12세기 청자문화의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다. 고려청자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은 문헌자료와 함께 역시 실제 유물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물분석에 근거한 문헌자료의 활용은 그림 없는 그림책『고려도경』이 담고 있었을 고려청자의 모습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다.

***주제어(key words)** _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Xuanhe fengshi Gaoli tujing), 고려청자(高麗靑瓷, Goryeo Celadon), 서공(徐兢, Seo Keung), 비색(翡色, Jade-green(Kingfisher Colour)), 정기제도(定器制度, Dingqi Zhidu), 사료(史料, Historical Sources), 해석(解釋, Interpretation)

■ 투고일 2019년 8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25일 ■

⁶¹ 한혜선, 「고려시대 도기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p.9-14.

참고문헌

1. 사료

『宣和奉使高麗圖經』

『學海類編』

『海東繹史』

2. 한국어 문헌

강경숙, 「고려전기 도자의 대중 교섭」, 『高麗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4.

고유섭 저·진홍섭 편역, 『高麗靑瓷』, 삼성문화재단, 1977.

고연미, 「『고려도경』의 금화오잔(金花烏盞) 연구」, 『한국차학회지』14-1, 200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2호선 수증발굴조사보고서』, 2011.

祁慶富, 「宣和奉使高麗圖經의 판본과 그源流」, 『서지학보』16, 1995.

김병인, 「고려도경에 비친 고려인들」, 『한국중세사연구』55, 2018.

김수연, 「『고려도경』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한국문화연구』16, 2009.

김세진, 「『高麗圖經』으로 풀어본 高麗 王室의 飲酒 文化: 卷26『燕禮』를 중심으로」,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김윤정,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石堂論叢』66, 2016.

_____, 「근대 미국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미술사학』32, 2016.

_____,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宋·金代 定窯자기의 영향」, 『야외고고학』29, 2017.

_____, 「근대 西歐의 시선으로 본 高麗圖經과 고려청자」,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김태은, 「고려시대 매병의 용례와 조형적 특징」, 『미술사학연구』268, 2010.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고려도경』, 1978.

박정민, 「명칭과 용도를 통해 본 매병의 기원과 변천」, 『매병에 담긴 역사이야기』, 고려청자박물관, 2017.

박지영, 「『고려도경』의 시각적 재구성」,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방병선, 「고려청자의 중국 전래와 도자사적 영향」, 『강좌 미술사』40, 2013.

배규범, 「徐兢(1091~1153)의 『高麗圖經』刊行과 내용상 특징」, 『東方文學比較研究』6, 2016.

徐兢,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도경』, 서해문집, 2005.

_____, 조동원 등 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송재용, 「『고려도경』에 나타난 高麗의 民俗 研究」, 『동아시아고대학』32, 2013.

신숙, 「서궁이 마주하고 기록한 고려의 器皿」, 『宣和奉使高麗圖經』,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 정하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0.

_____, 『안동 안막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0.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윤용이, 『韓國陶瓷史研究』, 문예출판사, 1993.

_____,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1996.

이용진, 「고려시대 의례와 『고려도경』의 香爐」,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이종민, 「고려~조선 초 매병의 제작과 형태변화」, 『매병 그리고 준: 향기를 담은 그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이희관, 「복숭 여요와 그 성격 문제 - 송대 문헌기록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64, 2012.

_____, 『皇帝와 瓷器』, 경인문화사, 2016.

_____, 「고려청자와 定器制度」, 『陶藝研究』26, 2017.

_____, 「汝窯와 이른바 汝官窯- 여요의 성격과 관련된 논의의 여정」, 『야외고고학』32, 2018.

임진아, 「高麗遺蹟出土 宋代磁器 研究」, 『史林』22, 2004.

_____, 「高麗靑磁에 보이는 北宋·遼代 磁器의 影響」,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남원,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청자茶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24, 2007.

_____, 「필사본 『고려도경(高麗圖經)』의 유포와 의의」, 『한국문화연구』17, 2009.

_____,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의 기명류(器皿類) 연구」, 『역사와 담론』40, 2014.

_____, 「동해시 삼화동 고려 고분 출토 도자의 검토」, 『동해 삼화사와 고려 고분의 재조명』, 2017.

_____, 「『高麗圖經』의 ‘定器制度’와 청자」, 『한국중세사연구』55, 2018.

장주원, 「고려 자기의 비색(翡色) 및 상감(象嵌) 수법에 대하여」, 『문화유산』2, 1958.

정양모, 『國寶』3 靑磁土器, 문예출판사, 1983.

_____, 「삼척군 북평읍 삼화리 출토 고려시대 유물 일괄」, 『고고미술』129-130, 1976.

정은진, 「서궁의 눈에 비친 고려청자: 『宣和奉使高麗圖經』再考」,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蔡孜芬, 「송대 중국의 반잔(盤盞) 풍조」,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2019.

최건, 「高麗翡色の 성격과 전개」, 『美術資料』83, 2013.

최몽룡, 「고려도경에 보이는 器皿」, 『한국문화』6, 1985.

최용천,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시대 공예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55, 2018.

한성욱, 「三陟地域 靑瓷文化의 現況과 性格」, 『이사부와 동해』13, 2017.

한혜선, 「고려시대 도기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 동양어 문헌

高美京, 「定窑研究」, 北京大学 考古文博学院 博士研究生学位论文, 2015.

高裕燮, 『朝鮮の靑瓷』, 東京: 東雲文庫, 1939.

權相仁, 「軍持に關する研究」, 京都工藝纖維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野守健, 『高麗陶器の研究』, 東京: 清閑舎, 1944.

謝明良, 「北宋官窯研究現狀的省思」, 『故宮學術季刊』第27卷, 第4期,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10.

小田省吾, 『朝鮮陶磁史文献考』, 東京: 學藝書院, 1936.

內山省三, 『朝鮮陶磁鑑賞』, 東京: 學藝書院, 1936.

伊藤郁太郎, 「北宋官窯探訪」, 『陶說』620, 日本陶磁協會, 2004.

久志卓真, 『朝鮮の陶磁』, 東京: 雄山閣, 1974.

4. 서양어 문헌

G. St. G. M. Gompertz, “The Kingfisher Celadon of Koryo,” *Artibus Asiae*, Vol. 16, No. 1/2, 1953.

Percival David, “A Commentary on Ju Ware,”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s Society* reprint, 1936-1937.

국문초록

『고려도경』은 문헌자료가 부족한 고려청자 연구 환경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도자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물론 조선후기 일부 사대부들 역시 『고려도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고려청자를 인식했다.

현재 『고려도경』은 그림 없이 글만 전하지만, 애초에 그림과 글이 함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고려도경』의 글은 서공이 전달하려던 고려청자의 특징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대신 글뿐인 『고려도경』의 불완전성은 고려청자 연구에 여러 추론과 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연구할 거리’를 제공해준 『고려도경』의 제한적 정보는 현재 남아있는, 혹은 앞으로 출토될 유물과 만나 고려청자의 새로운 연구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그림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은 앞으로도 고려청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동시에 늘 실제 고려시대 청자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vidential Value of the *Illustrated Records of the Chinese Embassy to the Goryeo Court during the Xuanhe Era* (*Xuanhe fengshi Gaoli tujing*) for the Study of Goryeo Celadon

Park, Jung-min*

In the dearth of textual evidence for the study of Goryeo celadon, the *Illustrated Records of the Chinese Embassy to the Goryeo Court during the Xuanhe Era* (*Xuanhe fengshi Gaoli tujing*, hereafter *Illustrated Records*) has received tremendous attention in the field. Not only scholars of Korean ceramics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late Joseon literati also came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Goryeo celadon through what was written in the *Illustrated Records*.

Although it was initially designed to contain both texts and illustrations, its extant version no longer has the illustration portion. In this light, it is safe to assume that its textu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characters of Goryeo celadon is inevitably partial. Such an incomplete state of the *Illustrated Records* can generate much speculation and debate. It is imperative that the *Illustrated Records* be complemented by archaeological materials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or to be excavated. The *Illustrated Records* without illustrations, therefore, can continue to serve as the indispensable source for the study of Goryeo celadon. Meanwhile, it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multidimensional analyses of actual material evidence of Goryeo celadon.

* Myongji Univ. Assistant Professor in Art History